

하나님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오늘은 청소년주일입니다. 푸른꿈사랑방에서 예배를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예배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젊은이주일입니다. 늘푸른사랑방과 젊은이사랑방에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제 38 - 20호
2021년 5월 1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핵전쟁에 대비해서 방공호를 파야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실없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웃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진지하게 어느 위치에, 얼마나 파야하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한참을 학생과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은 화성에 감자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화성의 대기의 질과 가는 방법, 가서 맛따뜨리게 될 환경 등 영화를 보면서 토론을 합니다. 저는 한동안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가 가르쳐야 할 교육이 무엇인지 그 둘의 대화에서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말합니다. 꿈을 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희조차도 희미하게 대답할 뿐입니다. 어렸을 적 꿈은 그저 장래희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직업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꾸는 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은 조금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낸 장래희망과는 다른 어떤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고, 직업으로 한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꿈은 오늘 당장의 현실 안에서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에 몸을 기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꿈은 그것을 품은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무언가를 향해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언가로, 이해를 뛰어넘어 달려들었던 무엇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끝내 마음속에 남아 나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감히 그것을 꿈이라 말해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살아갔던 요셉에게 꿈이란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히 알지 못한 채 걷는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꿈은 구체화되고 현실화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커다란 계획이었음이 밝혀집니다.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전율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꿈꾸는 요셉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큰 꿈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

러나 그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위대함이 오늘 보이길 원하고, 가능성이라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세어볼 수 있기를, 가능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터무니없다고, 뭘 먹고 살겠냐고, 현실의 틀로 그들을 가둡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어이없는 이야기라고, 현실적으로 그런 게 가능하겠냐고, 네 일상이나 제대로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현실을 알려주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다가갑니다.

하지만 꿈꾸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꿈들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심지어 빈약한 우리의 상상력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하는 꿈이라도 그들은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 소중함이 저희에게는 저희의 자아를 투사시키지 못한 불편함이 되어 마음을 어렵게 하곤 합니다. 우리의 충족되지 못했던 자아가 자녀들에게 욕망을 내비칩니다.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녀들의 한계치와 세상의 틀입니다. 그것들은 벽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동시에 자녀의 길을 제한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고백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꿈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른 이들의 시선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중한 꿈을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변화시킨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노예제 폐지를 부르짖은 윌리엄 월버포스, 통일운동을 전개하며 기독교 민주운동의 중심점이 되었던 문익환, 끝까지 나치에 동조하지 않고 독일 고백교회를 이끌던 디트리히 본회퍼,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쳐서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그 외에 별과 같은 꿈을 가슴에 품고서 이루어 내고자 했던 수많은 믿음의 어른들. 그들은 현실과 가능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사랑방은 꿈꾸는 자를 키우는 요람입니다. 이 요람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사소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무리 현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이해가 그들의 상상을 품어줄 수 없더라도. 그저 받아주고 들어주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더라도. 그 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지해주었으면 합니다. 그 지지에서 우리 작은 사랑방 식구들은 꿈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방을,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구원하실 위대한 꿈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돈희 선생

한주간의 말씀

사무엘에게 일러 주었다.
 “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창세기 38장
 제목 : 불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79 86 249 260 295 486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절~11절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다>
 12절~30절 <다말이 유다에게서 아이를 낳다>

2. 내용의 의미(Why)

야곱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 가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으로 성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얻은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다말이 썼던 방법은 불완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신앙에 유해 한 주변의 환경과 조건들을 잘 분별하여 신앙을 지키도록 애쓰자.
- ② 하나님의 가정과 공동체를 성결케 하여 올바르게 지키자.
- ③ 현실의 삶에서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인내하자.

안녕하세요 원영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저의 삶의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2004년 생으로 올해 18살입니다. 꾸러기학교 16기 졸업생이고, 어린이 학교는 13기 졸업생입니다. 어린이학교 졸업 후 멋쟁이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사랑방공동체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잦은 여행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나 싶습니다. 저는 멋쟁이학교에서 약 2년 동안 생활하다 자퇴하여 2018년에 필리핀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은 비교적 방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에어 라이너 파일럿이었습니다. 즉 ABC와 사칙연산도 힘든 저에게 있어서 파일럿은 이루기 힘든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행기에 완전히 꽂혀있었고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유학의 기회가 생겼고 겁 없이 앞만 보고 달렸던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언어(영어)를 마주한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How are you밖에 몰랐던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주에 혼자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 선생님들과 대화해야 했고 영어로 시험도 봐야 하며 영어로 밥도 사 먹어야 했습니다. 약 1년간은 최대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동글해진 저의 눈을 숨기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친한 친구들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어 갔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1년을 더 지내며 유학 생활 2년이 되던 해 '그 질병'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으며 2020년 3월 20일, 저는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제 막 외국 학교가 재미있어질 때 돌아오게 돼서 슬프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왔지만 신기하게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한국 냄새와 반질반질한 공항 바닥, 저를 반겨주는 한글을 보며 한국 집으로 왔습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하루하루 먹고 자며 신나게 놀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현재 저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사랑방공동체 친구들이 그림지만 힘들 때는 저의 오래된 취미인 사진을 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여러분과 모든 공동체 가족분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3^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인도자 : 최지수학생
설교자 : 최기찬전도사

디모테전서 4 : 4-5 인도자
1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대표기도)

고린도후서 5 : 17 인도자
다함께
220 다함께
다함께
정이안학생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무엘” 최기찬전도사

사무엘상 3 : 1-14 진나우학생
선하신 목사 푸른꿈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다함께
박인하학생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공소운 이홍인 / 봉헌위원 : 김예쁨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부르실 때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무엘

사무엘이 주님의 성전에서 자람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곁에서 하나님의 귀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에게 두 번이나 달려갔지만 부르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세 번째로 온 사무엘에게 엘리는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거든 “주님, 말씀대로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혼란의 시기를 잇는 사무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를 이어주는 과도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국시대의 앞부분은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들었던 사무엘은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청소년 시기는 배움의 시기이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신체적, 인지적, 심리정신적, 사회적 영역에서 변화를 겪으며 정리해 갑니다. 이때에 발달하는 속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형성되면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권재만 목사 / 기도: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 밭을 만들었어요. 화요일 오전에 이어람 선생님은 홀로 삽질을 하시고 꾸러기들은 송우리에 가서 모종을 샀어요. 꾸러기들이 좋아하는 찰옥수수랑 검정옥수수랑 가지랑 토마토랑 빨강 노랑 대추토마토 모종을 샀어요. 꾸러기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만한 샐러리랑 당귀랑 붉은 치커리도 샀어요. 점심 먹고 밭에 심었어요. 공동체 밭에 많이 올라온 상추도 솥아서 심었어요. 잘 자라라고 얘기하며 물도 열심히 주고 있어요.

이번 주는 날씨가 벌써 여름 같아서 송추계곡에 놀러 갔다 왔어요. 오전에는 나무로 만든 놀이터에서 좀 놀고 솥바꼭질도 했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양말 벗고 계곡에 밭을 담가보았어요. 올챙이들 구경도 하고 손으로 잡아보기도 했어요. 신발이 걸거쳐서 벗어서 물을 떠서 신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보기도 하고 신발을 던져서 물에 떠내려가는 것도 보았어요. 놀다가 스이가 물속으로 엉덩방아를 찧어서 흘랑 젖었어요. 뭐 그전에 다들 아랫도리가 다 젖긴 했지만요. 돌아오는 차에서 언제나처럼 재미있던 것, 힘들었던 것을 얘기했는데 다 들어보니 종일 "재미있었다"네요.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지난 주일(5/9) 오후 교육관에서 학부모회의가 있었습니다. 거리 유지를 위해서 서로 가까이 붙어 앉을 수는 없었지만, 만나지 못했던 시간과 띄어 앉은 거리가 무색하게 지난 일들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려서 서로의 표정이나, 심지어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모두들 따뜻하고 뿌듯한 눈빛과 마음으로 모임을 가졌고 6월에도 오프라인 모임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 뿐 아니라, 교사와 부모님들끼리도 이렇게 모임이 고맙습니다. 5월은 특별 행사 중에 '1박 2일 캠프'가 있는 달입니다. 캠프장에서 조별로 3번의 끼니를 해결하고, 같이 잠을 자고 오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법 힘들고 많이 재밌기도 한 여행이 바로 캠프인데요. 작년에는 아예 엄두도 낼 수 없었지만, 올해는 하루(목요일)는 돛자리 들고 도시락 싸서 가는 나들이로, 또 하루(금요일)는 학교에서 조별로 점심 한 번, 간식 한 번을 만

들어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로 색깔 티셔츠를 맞춰 입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여섯 조 이름이 '노랑이 답이다(줄여서 노답)', '분홍빛 밤하늘', '보라해', '초록빛 썬무', '민트에 굶주린 외계인', '오렌지에 빠진 5인'입니다. 재밌고 기발하죠?!

나들이 날과 캠프 미션을 위해 조장과 조원들이 메뉴를 의논하고, 준비물을 나누고, 잘 챙겨오고, 잘 먹고, 또 정리하기까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정을 지냈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은 즐겁지만 함께 준비하고, 함께 정리하는 협동과 배려의 시간을 잘 지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월요일 주제탐험 시간 피드백을 함으로써 캠프 관련 일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 밥해 먹느라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도와주신 부모님들 모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이번주 멋쟁이는 오랜만에 학교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모두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코 안쪽이 물이 들어간 것처럼 얼얼하고 한동안 콧물이 나오기도 하는 등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만날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고, 끝내 음성 판정 결과문자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수업도 듣고, 활동도 하면서 활기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동심화학습은 "5월, 바로 알고 제대로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5월의 기념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린수업으로는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여 다음 주에 있을 바베큐파티의 음식들을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가 있는 4학년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밝은 표정으로 수업에 참여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주셨던 교감선생님이 복귀하시고, 다른 선생님께서 4학년을 맡으시려고 떠나셨습니다. 각종 체험으로 가득 채운 4학년의 일정은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시간이었습니다. 마스크와 가림막, 1인 수면 텐트 등 코로나로 인해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불편함을 넘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학교생활을 채워나가길 기도합니다.

< 교사 : 이돈희 >

안녕하세요. 푸른꿈사랑방 이나영입니다

저는 사랑방공동체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사랑방공동체 분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 참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랐기에 아기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고, 들으며 몸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덕분에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꾸러기, 어린이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멋쟁이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합니다. 관계라는 추상적 개념에 지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스스로가 흐려질까 걱정도 되고, 변해가는 관계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나누고, 희생하며 서로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늦은 밤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며 공감하는 것, 힘든 순간 친구의 등을 밀어주는 것, 모두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것. 이런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의 기초가 되어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연대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혼자가 아니라 믿음과 거기에서 비롯한 용기를 줍니다. 혼자라면 할 수 없는 것을 함께이기에 해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그리고 진화하는 온라인 수업에 학교가 의미를 다하여 사라질 수 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란 단순히 지식만을 쌓는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 함께 지내며 부딪치고, 다투고 협력하며 함께 하는 삶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멋쟁이 학교를 다니며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아파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장을 통해 더 주체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돌봐 주어야 하는 아이에서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관계라는 앞으로 평생의 과제를 연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과의 관계에서도 미숙한 저이지만, 공동체 속에서 받은 사랑과 신뢰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더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른꿈사랑방 이나영 학생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디모데전서 3장1-5절

인 도 : 해은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인도를 위해>

인도의 코로나19 지난달 말 기준 일일 확진자 약 38만명, 누적 확진자 약 1875만명, 사망자는 약 20만명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도 병원의 침상, 산소통, 의료기기 등이 부족하고 시신 수습도 어려울 정도로 국가 의료체계가 붕괴된 상태다. 국제사회와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인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수원>

1) 중보기도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예수원 사명자들을 보내주시길
2) 5월부터 시작될 77기 자원생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3) 예수원에서 시작된 중등홈스쿨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의 삶과 신앙 그리고 지식을 잘 전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사랑방공동체의 각 가정을 위해
- 2) 공동체 학교의 안전을 위해
- 3) 방모임에 잘 참여함으로 공동체가 안정될 수 있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는 낮밤으로 일교차가 매우 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옷깃을 여미게 되지만, 한낮에는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가 싶더니, 늦은 밤에는 여름을 연상케 하는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이곳 저곳에서 잡초를 뽑아서 깨끗하고 말끔해진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공동체 마당이 더욱 아름답게 정돈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동체 학교마다 코로나로 인한 관계형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공동체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감사의 표현들을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름답고 사람 사는 맛을 더해 주는 일입니다.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 정재훈 목사 >